

두 개의 블루 다이얼 모델이 빌레레 컬렉션에 추가되다

올해 블랑팡의 가장 클래식한 컬렉션이 블루 컬러, 그리고 순수한 라인을 결합한다. 빌레레 컬렉션의 두 상징적인 레드 골드 타임피스에서 블랑팡의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이 컬러를 만날 수 있다. 컴플리트 캘린더(Complete Calendar)와 엑스트라 플레이트(Extraplate)가 그 주인공이다.

빌레레 컬렉션은 1735 년 블랑팡이 설립된 마을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. 빌레레 모델은 심플한 실루엣, 타임리스한 우아함,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교한 기술력을 특징으로 한다. 이 대표적인 특징이 컬렉션의 주요 타임피스 두 개를 장식하는 매력적인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과 함께 더욱 부각된다.

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(Villeret Complete Calendar)모델에서는 월, 일, 요일을 표시하는 컴플리트 캘린더와 문페이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. 다이얼 위에서는 12 시 방향의 요일과 월을 표시하는 두 개의 나란한 창, 구불구불한 스네이크 핸드로 표시하는 날짜,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한 6 시 방향의 문페이스를 발견할 수 있다. 이 타임피스는 부주의한 사용으로부터 시계를 보호해주는 안전 시스템을 갖춘 6654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다. 덕분에 시계 소유주는 전통적인 캘린더 위치와는 달리 무브먼트가 망가질 염려 없이 언제나 컴플리트 캘린더를 조정할 수 있다.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모델은 또한 특허를 받은 언더-러그 커렉터(under-lug corrector)를 갖추고 있어 모든 정보를 손가락으로 눌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푸셔를 누르는 도구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우아한 빌레레 엑스트라 플레이트(Villeret Extraplate)는 컬렉션의 미학적 코드를 정제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. 시와 분 디스플레이 외에 기다란 중앙 초침과 3 시 방향 날짜 창이 이상적인 시각적 균형미와 가독성을 보장한다. 이 타임피스는 2 개의 짝을 이룬 배럴과 고성능 스프링 덕분에 4 일 파워리저브 가능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1151 을 탑재하고 있다.

이 새로운 모델에서 처음으로 40mm 레드 골드 케이스와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이 만났다. 세련된 고귀함의 상징인 블루 컬러가 선버스트 다이얼 피니싱과 만나 깊이감과 반짝임을 극대화한다. 이 두 종류의 빌레레 블루 다이얼 위에는 레드 골드 소재의 로마 숫자 아플리케 아워 마커와 이와 매치되는 가느다란 레드 골드 바늘을 놓았다. 시침과 분침은 컷-아웃된 세이지 나뭇잎 형태를 하고 있는 반면, 초침은 하우스의 창립자 예한-자크 블랑팡(Jehan-Jacques Blancpain)의 이니셜을 품고 있다.

새로운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와 빌레레 엑스트라 플레이트 타임피스의 매력은 뒷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.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보이는 무브먼트에서 브리지를 장식한 코트 드 제네브 모티프, 레드 골드 로터 위 허니콤 패턴 등 세심하게 작업한 데커레이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. 이

순수하고 우아한 타임피스에는 다이얼만큼이나 강렬한 컬러의 미드나잇 블루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.